

II-7. 임플란트 식립 후 하치조 신경 손상에 관한 증례와 대처방안

박지은¹, 김태균¹, 정의원¹, 김상성², 최성오², 조규성², 채중규¹, 김종관²

¹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과학 재생 연구소

²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과학 재생 연구소, BK21 의과학 사업단

연구배경

최근 치과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임플란트 시술시 매식체(fixture) 길이가 긴 것이 선호됨으로써 drilling 시에 하치조신경관의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신경손상의 보고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무감각(anesthesia)이나 지각이상(paresthesia)과 같이 감각인지의 변화는 신경학적으로 'altered sensation' 또는 'dysanesthesia' 라 불리우며, 신경손상에 의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감각변화는 신경손상의 정도에 따른다. 신경손상의 치료법에는 신경관재생을 유도하는 미세재건수술을 비롯한 수술적 방법과 약물요법을 동반하는 보존적 치료법이 있는데, 수술적 접근법은 환자의 거부감이나 수술시 외상 등의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약물요법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연구방법 및 재료

연세대학교 치주과에 내원한 임플란트 식립 환자에서 발생한 하치조신경 손상의 증례로 원인 임플란트 제거 후 항경련제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요법으로 치료하였다.

연구결과

약물 치료 후 지각이상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각이상의 발견과 치료 시작이 빠를수록 회복 정도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결론

임플란트 환자에서 지각이상이 나타난 경우 수술적 방법보다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 후 반응이 없고 환자가 외과적 수술에 동의할 경우 손상 3~4개월 이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상담을 의뢰해야하며, 이후 예후에 따라 다시 구강안면통증 전문의에게 의뢰되어야 할 것이다.